
		보 도 자 료			
2021년 1월 4일(조간)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 <small>* 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월 3일 11시부터 보도 가능</small>					
배포일시	2020. 12. 31. (총 3쪽)	담당부서	가축유전자원센터		
담당과장	이성수 센터장 (055-960-3510)	담당자	고응규 연구관 (055-960-3530)		

흰 소의 해, 진짜 주인공 백우를 ‘만나보소’

- ②우(牛)라차차, 신축년에 듣는 우리 소 이야기 : 백우 -

□ 농촌진흥청(청장 허태웅)은 2021년 신축년(辛丑年) 흰 소의 해를 맞아 우리 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2회에 걸쳐 소개한다.

○ 이번 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 했던 흰 색 한우인 백우에 대한 이야기다.



<백우>

□ 역사 문헌 속 백우

○ 1399년 발간된 조선시대 수의학서인 「신편집성마의방우의방(新編集成馬醫方牛醫方)」¹⁾의 기록을 보면 과거 우리나라에는 칙소, 흑우, 백우, 청우, 황우 등 다양한 털색(모색)을 가진 한우가 존재했다.

○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털색 개량의 방향을 황색으로 고정하게 됐으며, 황색 한우를 제외한 백우, 칙소, 흑우, 제주흑우 등 한우는 잡소로 취급해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됐다.

□ 3마리로 시작한 백우 복원


-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2009년 정읍과 대전에서 백우 암소 2마리와 수소 1마리를 수집했다. 이후 인공수정, 수정란 이식 등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 개체 수를 늘려왔으며, 현재 가축유전자원센터(경상남도 함양군)에서 25마리를 사육하고 있다.
- 또한 연구를 통해 백우가 황색 한우와는 같은 계통이지만 백색증(알비노)으로 털이 흰 색이며, 흰색 계통인 외래 품종 샤롤레와는 전혀 다른 우리 고유의 한우로 구별되는 특징을 가졌음을 밝혔다.
- 멸종위기²⁾ 단계인 ‘백우’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(FAO) 가축다양성 정보시스템(DAD-IS)에 우리나라 품종으로 등록되어 있다.

□ 백우 등 희소한우 가축 무리(축군) 조성 추진

-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2020년부터 백우, 칙소, 흑우 등 희소한우의 유전 특성을 분석하고 과배란 처리³⁾, 성관별 등 생명공학 기술을 개발해 가축 무리를 조성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.
- 백우의 가축 무리가 조성되면 분자유전학적, 영양생리적 특성을 밝히고 번식·개량 및 사양관리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.

□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이성수 가축유전자원센터장은 “흰 소의 해를 맞아 백우 등 다양한 희소한우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차별적 특성을 밝혀 가축유전자원의 가치를 확보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.”라고 말했다.

【참고자료】 백우 사진



공공누리 공공저작 자유이용허락

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
 농촌진흥청 가축유전자원센터 고응규 농업연구관(☎ 055-960-3530)에게
 연락 바랍니다.

2) 멸종위기군: 번식 가능 암컷이 100마리 이하이거나 암수의 합이 120마리 이하.
 멸종위험군: 번식 가능 암컷이 1,000마리 이하이거나 암수의 합이 1,200마리 이하.
 희소군: 번식가능한 암·수의 합이 5,000마리 이하.
 3) 암소가 다수의 난자를 배란하게 함.

1) 조선 전기, 말과 소에 관해 기술한 수의학서.

<참고자료>

우리나라 고유 흰 소 백우 사진



< 현재 백우는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(경남 함양)에서 25마리를 사육하고 있다. >